**<곤지암> 프로젝트 발표회 녹취록**

**일시: 2018년 2월 21일 수요일**

**참석자: 정범식 감독, 위하준, 박지현, 오아연, 문예원, 박성훈, 유제윤**

**사회자: 박경림**

**# <곤지암> 오프닝 영상 상영**

**사회자>** 티저 예고편 공개만으로도 역대급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던 화제의 영화 <곤지암>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프로젝트 발표회를 통해 베일에 싸여있던 모든 것이 공개된다.

영화 <곤지암>은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로 CNN에서 선정한 공포 체험의 성지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7인의 공포 체험단이 겪은 기이하고 섬뜩한 일을 그린 체험 공포 영화이다. 특히, ‘곤지암 정신병원’은 요즘 10대, 20대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곤지암 괴담’을 소재로 하고 있다. 오프닝 영상 ‘괴담의 시작’에서도 이미 확인하셨듯이, 곤지암 괴담이 영화화된다는 소식만으로도 많은 관심과 궁금증을 함께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영화 <곤지암>은 <기담>을 통해 탁월한 미장센과 연출력을 인정받은 공포 영화의 대가 정범식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으로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체험 공포’라는 장르를 새롭게 개척했다. 실존하는 장소를 모티브로 관객이 실제 장소에 있는 듯한 생생한 공포감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 <곤지암>을 통해서 새롭게 시도하는 ‘체험 공포’를 직접 만끽할 수 있는 풋티지 영상을 만나보겠다.

풋티지 영상 중에 일부는 스크린X 포맷으로 상영된다. 이 자리에서 독점 공개되는 영상인 만큼 카메라 촬영과 별도의 릴리즈는 불가하다

**# 풋티지 영상 상영 -스크린 X 버전**

**사회자>** 영화 속 곤지암 정신병원 내부를 체험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의 생생한 카메라 시점과 영상 효과 때문에 실감 났다. <곤지암>을 통해서 한국 공포 영화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정범식 감독을 모시고 궁금증을 풀어보겠다.

**#감독 등장 및 인사**

**사회자>** 인사 부탁드린다.

**정범식 감독>**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하다. <곤지암>을 연출한 정범식이라고 한다.

**사회자>** 감독님의 전작들을 돌이켜봤을 때 <기담>, <무서운 이야기> 시리즈를 관람했을 때도 신선한 공포감이 있었다. <곤지암>을 통해 새롭게 공포 영화로 다시 돌아온 이유를 묻고 싶다.

**정범식 감독>** 전 세계적으로 호러 영화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한국 영화에서도 호러 영화 팬층이 정말 두터워졌다고 생각한다. 관객들이 아쉬워하고 실망스러워하는 부분이 ‘한국 호러 영화는 세계 영화 수준으로 못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다. <기담>을 연출한 지 지난해가 10년째였고, 올해로 11년째인데, 새로운 호러 영화로 한국 공포 영화계에 붐도 조성하면서 새로운 한국 장르 영화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사회자>** 이제껏 만날 수 없었던 새로운 장르라고 하던데, 차별점이 있을 것 같다. 체험 공포 <곤지암>에 대한 궁금증, ‘디렉터스 토크’를 통해 풀어보겠다.

**#디렉터스 토크**

사회자> 디렉터스 토크에서는 ‘체험 공포’라는 장르 개척을 위해 도전했던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 이야기 나눠보겠다.

**키워드 1: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 #부산에위치한폐교 #100퍼센트재현 #가상의공간**

**사회자>** 첫 번째 키워드는 새로운 소재에 관한 것이다. 영화 <곤지암>은 CNN 선정,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이자, 호러 마니아들의 공포 체험의 성지로 알려진 곤지암 정신병원을 소재로 하고 있다. 곤지암 정신병원을 소재로 채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정범식 감독>** 2016년도 여름쯤에 제작사 대표를 통해 ‘새로운 호러 장르를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받으면서 CNN 선정 세계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장소 중 곤지암 정신병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끌렸다. 이런 소재를 다루게 된 것은 호러 컨텐츠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관심 덕분이라고 본다.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호러 컨텐츠를 영화 속에서 상상력으로 재가공해 관객들에게 생생한 체험 공포로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만들게 되었다.

**사회자>** 곤지암 정신병원을 영화 속에서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가장 중요했을 것 같고, 곤지암 정신병원을 재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정범식 감독>** ‘곤지암 정신병원’ 관련해 유튜브 동영상이나 블로그에 많은 사진들과 자료들이 있다. 예전에는 버려진 폐허였는데, 지금은 많이 정리된 사진들이었다. 그리고 공간들을 보면 복도 양쪽에 병실들이 있는 형태인데, 사실 영화적으로 가공하기엔 너무 단순하고 밋밋하다 보니까, 상상의 공간으로 재가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어냈다.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가상으로 버려진 정신병원, 그런 사연과 공포가 깃든 정신병원의 이미지를 갖는 건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어디로 할까, 그래서 전국의 흉가나 건물들을 정말 모두 찾아다녔다. 부산에 위치한 폐교를 찾았고, 그 공간을 가공하게 된다면 훨씬 더 그럴듯하고 무서운 공간으로 탈바꿈되겠다 싶어서 그곳을 미술적으로 세팅해서 촬영하게 되었다.

**사회자>** 부산에 있는 폐교를 찾아서 그 공간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것인가?

**정범식 감독>** 처음 설정부터 7인의 공포 체험단뿐만 아니라, 공간 역시 <곤지암>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 건물 안 여러 공간들 역시 각각의 캐릭터를 가진 주연들이라고 설정을 했다. 그러다 보니 그로테스크한 실험실, 마치 고문을 자행했을 것 같은 집단 치료실, 38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402호의 미스터리한 공간 같은 설정이 있었다. 영화 속에서 공간들이 뒤바뀌면서, 그런 공간들을 설정에 맞게 미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던 것 같다.

**사회자>** 현실적인 장소와 상상력이 부합되어서 만들어 낸 공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더 빨리 그 공간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 키워드를 알아보겠다.

**키워드 2: 극장이 곧 곤지암 정신병원이 된다 #체험공포 #배우가촬영 #현장의소리**

**사회자>** 두 번째 키워드는 ‘새로운 장르’에 관한 키워드이다. <곤지암>은 이제까지 접하지 못한 ‘체험 공포’ 장르를 표방하고 있는데, 새로운 형식의 공포 영화를 위해서 실존하는 장소를 소재로 택한 것은 물론이고, 촬영 과정도 파격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타의 공포 영화들과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인가?

**정범식 감독>** 미국 영화 같은 경우 ‘페이크 다큐멘터리’나 ‘파운드 푸티지’라는 장르가 많이 발달했는데 극 중 인물들이 카메라를 한 대나 두 대를 들고 등장한다. 그런데 사실 촬영하는 연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 촬영은 촬영팀이 한다. <곤지암>은 지금 사실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한데, 촬영 감독님과 콘티 작업을 하다가 제가 이거 다 배우들이 찍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 배우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제작사에서도 몇 컷만 찍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저희는 특별한 장치를 고안해냈는데, ‘페이스캠’이라고 해서 얼굴을 촬영해주는 캠과 ‘POV 캠’이라는 시점을 보여주는 캠을 달아서 동시에 두 대가 구동되게 했다. 한쪽 손에는 캠코더나 VR 카메라, 혹은 고프로 스틱을 들게 해서 배우들마다 각 3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게 되었다. 체험 대장이 베이스 캠프에서 지휘를 하면, 6명의 체험단이 공간 안에 들어가서 찍게 되는데 6명 X 3대의 카메라, 즉 18대의 카메라가 촬영을 하는 것이다. 촬영이 시작되고 내부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스탭 아무도 공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우들끼리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롱테이크로 촬영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배우들이 실제 그 장면에서 줌을 하거나, 팬을 하는 등 각도까지 다 계산을 해서 촬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다. POV 캠을 많이 사용하면서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었던 만큼,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비주얼을 보여드릴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사회자>** 배우분들이 정식 촬영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런데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새롭겠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편집하면서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

**정범식 감독>** 편집과 모니터링이 정말 힘들었다. 왜냐면 지금의 영화 현장에서 감독들은 사실 촬영하고 있는 장면을 현장 모니터를 통해 바로 확인을 한다. 저희도 처음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촬영장 공간 안에서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았다. 게다가 5분짜리 분량을 촬영할 때, 카메라가 10대라면 모니터링이 50분이 걸리다 보니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장면과 동선이 맞았는지 위주로 체크했고, 그러다 보니 배우들이 자진 납세하듯이 “못 찍었다 그 장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면 다시 촬영을 진행하고 하는 형태로 대처해가면서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찍어낸 소스가 편집 기사님들이 얘기하기론 일반 영화 기준으로 4배 이상의 분량이었다고 했다.

**사회자>** 정말 새로운 시도이고, 장르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장에 촬영 감독님이 없었던 건가?

**정범식 감독>** 아니다. 촬영 감독님과 모든 것을 같이 설계한 것이다. 배우들이 촬영 감독님과 함께 촬영 동선을 설계하고 앵글을 확인하면서 진행했다.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워낙 다양한 카메라를 사용해서 촬영해 놓은 소스가 많았기 때문에 1년 가까이 되는 후반 기간 동안 이 영상들을 어떤 질감과 어떤 콘트라스트와 색감을 줘서 사용해야 할지, 온갖 테스트들을 다 하면서 그것들을 공정하고 고쳐 나가는 등 최종 결과물까지 촬영 감독님과 함께 만들어냈다.

**사회자>** 풋티지 영상을 보면서 또 놀라웠던 게, 음악이 전혀 없었다. 보통 공포 영화에서 음악이 주는 공포감이 있지만 <곤지암>은 과감히 음악을 배제했다고 하던데?

**정범식 감독>** 처음에는 제작진들 사이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다. ‘그래도 장르가 호러 영화인데 음악이라던가 이펙트를 가끔은 과도하게 사용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체험 공포’를 표방하려면 인위적인 공포감을 선사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현실에서 채집된 사운드를 최대한 그대로 쓰는 것이었다. 또한, 영화상의 각 공간마다 캐릭터가 있는데, 그 공간이 내는 소음인 ‘앰비언스’ 사운드를 다 설계해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사운드를 만들어 냈다. 음악 같은 경우에도, 극 중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에서 트는 설정이 아니면 영화적으로 설정된 음악은 단 한 하나도 없었다.

**사회자>** 사운드를 배제했지만,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어 낸 영화가 바로 <곤지암>인 것 같다. 이제, 세 번째 키워드를 만나보자.

**키워드 3: 공포 장르, 신인 배우 발굴의 장 #공포체험단 #팀오디션 #스타등용문**

**사회자>** 마지막 키워드는 ‘새로운 얼굴’이다. 영화 <곤지암>의 주연 배우들은 모두 영화 경험이 전무했던 신인 배우들이다. 촬영까지 함께 하려면 오히려 경험이 많은 베테랑 배우들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신인 배우들로 캐스팅한 이유가 있었나?

**정범식 감독>** 이 작품은 체험 공포 장르이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현실성을 덧붙여야 하다 보니, 기성 배우나 스타 배우 분들을 기용하게 되면 극중의 캐릭터로 바라보기보다는, 그 인물이 실제 가지고 있는 분위기나 인물의 과거가 투영되면서 영화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신인 배우들로 구성하게 됐다. 또한, 능숙하거나 테크니컬한 장르 연기를 보여주는 것은 사실 실재감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어떤 생생함이나 날 것 같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배우들을 찾게 됐다. 배우들이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연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우리 배우들이 촬영을 하면서 연기를 하는데, 지금 이 순간 보여지는 것 같은 날 것의 연기를 한다는 건 정말 베테랑 배우들에게도 어렵다. 그런데 우리 배우들은 처음부터 고생하면서 촬영하는 과정에서 촬영도 늘고 연기도 늘었다. 후반 촬영 때는 카메라 줌을 안 넣어도 되는데, 배우들이 넣기도 했다. 여담이지만 몇 명은 촬영 감독님에게 촬영팀으로 합류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다.

**사회자>** 한국 공포 영화가 이전부터 신인 배우 발굴의 장으로 수많은 스타들이 공포 영화를 통해서 배출됐었다. <곤지암>을 통해 촬영까지 하면서 멋진 연기를 보여준 배우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한 영화가 아닐까 싶어 더욱더 배우들에 대한 기대도 되고 있다. 이렇게 신선한 캐스팅과 색다른 촬영 기법으로 만든 공포 영화 <곤지암>의 촬영 현장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두 엿볼 수 있는 ‘프로젝트 영상: 체험공포 온에어’ 만나보자.

**#제작기 영상 상영**

**사회자>** 영화 <곤지암>, 새로운 시도의 총집합이 된 영화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새로운 시도 중의 하나인 새로운 얼굴들, <곤지암>의 주연배우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다. <곤지암> 공포 체험단 ‘호러 타임즈’ 멤버 위하준, 박지현, 오아연, 문예원, 박성훈, 유제윤씨 무대로 모시겠다.

**사회자>** 만나서 반갑다. 위하준씨부터 차례로 인사 부탁한다.

**위하준>** <곤지암>에서 ‘호러 타임즈’의 공포 체험 대장 ‘하준’역을 맡은 위하준이다.

**박지현>** ‘호러 타임즈’의 행동파 멤버 역할, ‘지현’을 맡은 박지현이다

**오아연>** 어리버리 막내 4차원 ‘아연’역을 맡은 오아연이다

**문예원>** ‘호러 타임즈’의 공포체험 마니아 ‘샬롯’역을 맡은 문예원이다

**박성훈>** 메인 카메라 담당 ‘성훈’역을 맡은 박성훈이다.

**유제윤>** 겁쟁이 맏형 ‘제윤’역을 맡은 유제윤이다.

**사회자>** 극 중 캐릭터 이름을 문예원씨 제외하고 모두 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정범식 감독>** 극 중 이름을 쓰는 것이 연기하는데 더 사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화를 통해서 잘 알려져야 할 친구들인데, 실제 이름을 쓰면 관객 분들이 더 잘 기억해 주실 것 같았다.

**사회자>** 문예원씨만 외국 이름을 쓰던데 어떤 이유인가?

**정범식 감독>** 문예원씨 역할은 미국 재미교포로서 CNN이 선정한 공간들을 도장 깨기 하러 다니는, 호러 마니아로 설정이 되었다. 그래서 실제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배우들로 오디션을 봤는데, 예원양의 미국에서 불리는 영어 이름 자체가 샬롯이었다.

**사회자>** 그런데, 영화 속에 등장하는 ‘호러 타임즈’의 멤버는 모두 일곱 명인데, 오늘은 여섯 분만 참석했다. 어떤 이유인가?

**정범식 감독>** 메인 진행을 맡은 이승욱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번 홍보 일정에 안타깝게도 참석을 못 하게 되었다.

**사회자>** 이제 영화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체험단 토크를 통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다.

**#체험단 토크**

**사회자>** 이번 체험단 토크에서는 배우 분들에게 궁금했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배우 분들이 모두 독특한 오디션 과정을 통해 캐스팅되셨다고 들었다. ‘호러 타임즈’의 행동파 멤버 박지현씨. <곤지암> 오디션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고 하던데, 소개해달라.

**박지현>** 지금까지 많은 오디션을 봤지만, <곤지암> 오디션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1차 오디션 때 처음 입장해서 자기소개하는 과정까지 촬영을 다했는데, 그때까지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되 대신 반말로 한 번 더 해보라고 했다. 그런 오디션은 처음이라 신선했고 재미있었다. 2차 오디션 때는 조를 짜서 조별로 연기를 했었는데, 그런 경험들이 촬영하면서도 사실적이고 실감이 나는 연기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감독님께서 일부러 그런 오디션을 생각하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사회자>** 감독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충분히 기획하고 준비하셨던 건가?

**정범식 감독>** 컨셉에 맞는 배우와 방식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의 오디션을 진행했다.

**사회자>** 박성훈씨, ‘호러 타임즈’의 메인 카메라 담당이었다. 오디션을 통해 캐스팅된 배우들 직접 촬영까지 하게 될 줄 몰랐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땠나?

**박성훈>** 눈앞이 캄캄해졌다. 기계랑 친한 편이 아니고, 카메라를 잡아 본 경험이 적어서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부담도 많이 됐었다. 항상 촬영장에 가면 촬영 전에 콘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어떻게 찍어야 할지 감독님이랑 촬영 감독님이 자세히 알려주시는데, 하루는 감독님이 ‘성훈이가 찍고 싶은 대로 찍어봐’라고 하셨고, 모니터링을 하시는데 ‘좋은데? 완벽한데?’라고 말씀해 주셔서 용기를 갖게 되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칭찬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좋았다. 엔딩 크레딧 촬영에 제 이름을 넣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실현되었는지는 모르겠다(웃음)

**사회자>** 호러 타임즈의 공포 체험 마니아 ‘샬롯’ 역할의 문예원씨는 풋티지 영상에서 보니, 공포스러운 순간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 같았는데, 어땠나?

**문예원>** 굉장히 공포스러웠지만, 재미있기도 했다. 무서웠던 장면은 매우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생각나는 장면은 지현씨랑 영화 속 곤지암 정신병원 내부를 둘러보다가 저에게 소름 끼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 결국 함께 건물에서 도망치는 장면이다. 그때 산길을 도망을 치는데 실제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촬영하는 중에 스탭 분들은 어디 있는지도 보이지 않았다. 특수한 캠으로 찍은 롱테이크 촬영이라 스탭들이 근처로 와선 안 되기 때문이다. 동물들 울음소리도 막 들리고 하니까 진짜로 둘이 도망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다.

**정범식 감독>** 칭찬해주고 싶은 것 중 하나는, 그 장면을 부산 영도에서 촬영하다 보니 각도를 트는 것에 따라 영도 바닷가의 오징어 잡이 배부터 해서 불빛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저 정도로 몰입된 감정연기를 하는 두 배우가 각도가 1~2도만 틀어져도 뒷 배경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촬영 각도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감정연기를 다 하면서 페이스캠이랑 POV캠으로 맞춰가며 촬영해서 진짜 첩첩산중에 와있는 것 같은 장면을 찍을 수 있었다.

**사회자>** 살 떨리게 무서운 에피소드들이 촬영 중간에 많았을 것 같다. 호러 타임즈의 겁쟁이 맏형 역할의 유제윤씨는 독특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던데?

**유제윤>** 부산 숙소에서 경험한 것인데, 촬영을 나가면 청소를 해준다. 한데, 어느 날, 촬영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수건도 제가 썼던 그대로 있고 쓰레기통도 그대로 있었는데 커튼이 열려있었다. 밤에 촬영하고 낮에 자는 일들이 많아서 햇빛 때문에 커튼을 치고 창문을 닫고 나갔는데 커튼이 열려 있었다. 그래서 카운터에 가서 ‘혹시 들어오셔서 아무것도 안 만지고 커튼만 여는 경우가 있냐’ 하니까 그런 일 없다고 했다. 그분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혼자 방에 들어와서 기분이 좀 이상했다.

**사회자>** ‘호러 타임즈’의 공포 체험 대장 역할의 위하준씨, 촬영 현장에서는 굉장히 외로웠다고 하던데, 무엇 때문인가?

**위하준>** 체험 대장 역할이었기 때문에 멤버들이 영화 속 곤지암 정신병원 내부를 체험하면서 촬영을 하는 동안 베이스캠프에서 모니터를 통해 통제, 지시 같은 것을 하는 역할이다. 실제 촬영을 할 때는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자 빈 모니터를 보고 멘트를 하고, 멤버들에게 지시도 내렸다가 화도 내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혼자 연기했다. 너무 어렵고 부담도 많이 되고 좀 쓸쓸하기도 했었다. 그렇지만 감독님, 스탭분들 모두 다 너무 잘 챙겨주시고 배려도 많이 해 주셨다. 멤버들도 시간이 날 때마다 와서 응원도 해주어서 힘내서 잘 찍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사회자>** ‘호러 타임즈’의 4차원 막내 오아연씨는 첫 주연 데뷔작이다. 그것도 공포영화 장르에 도전했는데, 작품에 임한 각오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나?

**오아연>** 평소에도 공포 영화를 곧잘 보는 편이다. <곤지암>에 캐스팅된 뒤에는 ‘이제 나도 호러 퀸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감독님의 전작들도 다 보고, 감독님께서 추천해 주신 공포 영화를 배우끼리 단체 관람하기도 했다. 소리지르는 연습도 많이 했다. 그런데 촬영하면서 4차원 어리버리 캐릭터라, 공포에 직접 마주하고 소리를 제대로 못 내본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촬영을 무사히 잘 마친 것 같다.

**사회자>** 이제, 기자간담회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기자 질의응답**

**Q. 배우들 각자의 공포영화에 대한 선호도가 궁금하다. 촬영이 한밤중에도 있고, 폐교에서도 찍고 했는데, 가장 힘들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인가?**

**위하준>** 생각보다 겁이 많아서 공포 영화를 즐겨보진 않았다. 캐스팅되고 감독님의 <기담>을 봤는데, 무섭지만 너무 슬펐다. ‘이런 공포 영화도 있구나’ 싶었던 게 많은 기억이 남고 그 후로는 공포 영화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오히려 호기심이 생겨 찾아보게 되었다. 현장에서 힘들었던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모니터와 싸우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박지현>** 저는 겁이 없어서, 평소에 공포 영화를 많이 즐겨본다. 평소에도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의 공포 영화, 해외 영화를 좋아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극 중의 샬롯과 파트너가 되어 함께 다녔는데, 저희가 탈출하는 신을 찍을 때 서로서로 의지가 많이 됐던 것 같다. 힘든 것도 많았지만 언니 덕분에, 감독님 덕분에 함께 잘 이겨내고 촬영할 수 있었다.

**오아연>** 저는 공포 영화를 잘 보는 편이다. 특별히 장소가 무서웠다기보다는 촬영 때문에 각 방마다 스탭 분들이 숨어 있어야 했는데, 복도 장면 찍을 때, 촬영이 끝나자마자 스탭분들이 문을 열고 나오는 게 가장 무서웠다.

**문예원>** 영화 속 샬롯은 공포체험 마니아로 나오지만, 저는 정반대로 단 한 번도 공포 영화를 본 적 없는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다. 정범식 감독님의 <기담>이 첫 공포 영화, 입문 영화였다. 막연히 무서워하다가 <기담>을 보면서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 저도 모르게 공포 영화에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했고, 그러한 틀을 깨는 과정에서 또 다른 장르의 영화를 접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힘들었던 장면은, 샬롯은 공포스러운 장소에 흥미가 많은데, 실제 저 같은 경우는 겁이 많다 보니 세트장이 너무 무서울 때가 있었다. 연기를 위해 겁을 떨쳐내려고 했던 것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박성훈>** 겁이 많아서, 가장 최근에 본 공포 영화가 <장화, 홍련>이었다. <곤지암>을 보게 된다면 성인이 되어 보는 두 번째 공포 영화가 아닐까 싶다. 촬영하면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아까 아연씨가 말한 것처럼 카메라가 돌면 스탭 분들이 다 숨었던 것이다. 멤버들과 같이 촬영을 할 때는 의지가 되는데 단독 신을 찍을 때는 정말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제 얼굴을 화면에 잘 담기 위해 비춰주는 라이트가 있는데 그걸 키면 제 시야는 좁아지고 어두운 곳에서는 저를 누구나 쉽게 잘 볼 수 있다는 게 공포감을 줬던 것 같다.

**유제윤>** 저도 공포영화 거부감 없이 즐겨 보는 편이다. 저도 사실 겁이 있거나 하는 편은 아니라 촬영이 힘들진 않았는데, 모니터를 통해서나 다른 배우들 옆에서 보면서 무섭게 느꼈던 것 같다. 제가 촬영할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Q. 감독님께 <곤지암>이 최근 티저 공개를 하면서 화제가 되었는데, 이렇게 뜨거운 반응 예상했나?**

**정범식 감독>** 사실 <곤지암>에 대한 관심도가 젊은 층에서 정말 많다는 건 유투브나 SNS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 곤지암 정신병원에 대한 것은 그 이전에도 방송에도 많은 소개가 되었다. 그런데 사실 6시간 만에 100만 뷰가 되었다는 건 제가 작업을 하다가 들었는데, 이 정도로 반응이 뜨거울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다.

**Q. 최근 영화 관련해 지자체와 갈등이 있다는 거로 알고 있다. 그리고 병원 부지 소유주가 이 영화가 화제가 됨에 따라 불편하기도 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정범식 감독>** 일단 그쪽에 피해가 가게 된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자체와 제작사에서는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

**Q. <곤지암> 반응 뜨거워지면서 곤지암 소유주가 영화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고 법원에 영화 상영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로 알고 있는데,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범식 감독>** 일단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하지만, 만약 괴담 같은 것들이 사실이라면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 등장할 것이다. <곤지암>은 CNN에서 선정한 장소 중 하나를 모티브로 해서 상상으로 만들어 낸 이야기이고, 영화를 보시면 새로운 형식과 어떤 것이 이른바 ‘이스터 에그’인지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영화일 뿐, 실제 장소와 이것을 혼동하게 만드는 영화는 아닌 것 같다. 영화는 영화이고 현실은 현실로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와 형식이 가미된 그런 영화라고 봐주시면 좋겠다.

**#마지막 인사**

**유제윤>** 참 어렵게 보람 있게 촬영을 마쳐서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고 고맙다. 많은 관심, 응원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박성훈>** 저도 배우로 참여를 했지만, 관객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작품이다. 배우 분들, 스탭 분들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따뜻한 관심 부탁 드린다.

**문예원>** 데뷔작인 <곤지암>의 첫 공식 일정이 오늘이라, 많이 긴장도 되고 떨렸다. 함께했던 감독님과 동료 배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곧 개봉할 <곤지암>을 보시면서 저희 ‘호러 타임즈’가 체험했던 공포 체험을 관객 분들도 느껴보시면 좋겠다.

**오아연>** 이 영화가 저희 배우들의 첫 상업 주연작이기도 하고 이런 자리도 저희가 처음이라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곤지암> 정말 열심히 찍었고 많은 관심 보여주실 만한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린다.

**박지현>** <곤지암>이라는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감독님 그리고 배우 언니, 오빠들과 함께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다. 영화를 아직 보진 못했지만 아마 관객 분들이 무서움도 느끼면서 좋아하실 수 있는 영화일 것 같다.

**위하준>** 정말 열심히, 재미있게, 뜻깊게 찍었다. 이제 개봉 앞두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린다.

**정범식 감독>**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촬영 4분의 3 정도 진행됐을 때 사실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고갈된 상태였다. 다른 감독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불면증이 와서 잠을 못 잤다. 인터넷을 우연히 검색하다가 김성수 감독님이 <아수라> 작품을 완성 후에 인터뷰하셨는데, 그 인터뷰 제목이 ‘승리의 횟수보다 어떤 종류의 싸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였다. 그때 약간 ‘어 이거 약간 내 이야기 같아’ 하면서 울컥했었다. 그래서 이 악물고 마지막까지 촬영을 마치고, 14개월 동안 한 프레임, 한 프레임까지 세공하면서 또 그 많은 양들을 정말 관객 분들에게 양질의 영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해서 작업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여기 있던 이 완전히 무한 긍정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좋은 배우들과 그리고 어둠 속에서 묵묵히 저를 지탱해줬던 스탭들, 그리고 14개월 동안 저와 이런저런 시도를 함께 해준, 후반 작업 팀이 없었다면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있는 배우들, 오늘이 첫 공식 무대인데 애정 어린 시선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을 재목이니까 많이 응원 부탁 드린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정말 수장답게, 피땀 흘린 노력이 새로운 장르가 되어 관객 분들께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